

## “별과 사람의 일생 닮은꼴”

산문박의 **천문학자 이시우박사**

폭설의 흔적이 아직 도시 곳곳에 남아있던 날. 이시우 박사(63·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를 찾았다. 그는 세상살이에 서툰 아이마냥 수줍은 듯 얼굴만 붉혔다.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친 사람이라 하기엔 말수도 적었다. 평생을 별만 보고 살아서일까. 그러나 일단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눈빛을 반짝였다. 목소리도 힘이 넘쳤다. “몇 년 전 1학년 학생들에게 교양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빠진 과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리학이든 천문학이든 결국 그 속에 인간이 들어가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 10년 화두 ‘가질 취(取)’ 선시집 ‘똥막대기’ 펴내

대부분 경력 짧은 강사 묶임 교양 강좌를 맡으며 그는 우주의 질서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보았다고 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듯한 별들의 일생이 사람과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우연히 금강경을 접하고 그 속에 영소의 단상들이 모두 들어 있음을 알고 놀랐다. 그 때부터 밤 늦도록 불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부처님 법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고 했다. 작년엔 불경 공부와 참선 수행 통틀어 떠오른 생각들을 <똥막대기>라는 시집으로 묶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허공이나/ 만우가 들어 있으니/ 빈 것은 아니로다/ 이 속에서 만물은 모였다가 흩어지며/ 또 흩어졌다가 모이면서/ 생명을 이어 가고/ 우주를 밝히는/ 불법이 세워진다.

“별들도 인간처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합니다. 별들 사이에 떠다니는 작은 물질이 모여 하나의 별을 만들고, 다시 그 물질을 우주에 되돌려주고 별은 죽습니다. 마치 인간이 지 수 화 풍 사 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은 모두 돌려주고 떠납니다.”

우주의 별은 두 가지 현상을 꼭 지킨다. 바로 가장 적은 에너지로 안정을 유지하려 하고 또 그 상태에 머물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

“별은 불안하면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심부의 핵만 남겨 놓고 모두 방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다음 세대의 별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버릴 줄 모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붙잡으려고만 합니다.”

최소의 에너지로 안정을 추구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별들의 삶. 이시우 박사는 그 별처럼 살고자 노력했다. 그 혼란 자가를 하나 없이 요즘도 버스를 타고 다닌다. 언제부턴가 학교와 집을 오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화두 아닌 화두 하나를 붙들었다. 선을 넘기면서부터다.

“언제부턴가 가질 취(取)자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욕망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는 것 게 아닌가는 일종의 자기 반성이었던 셈이죠.”

98년 정년퇴직을 5년이나 남겨놓고 스스로 교수직을 물러난 것은 그 때문이다. 처음 강단에 섰을 때부터 그는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선배

가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켰다. 20년 넘게 교수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에겐 당연한 듯이 보인다. 자기한테 꼭 필요한 에너지만 ‘취’ 하는 별들의 삶을 닮기로 한 그였으니까.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면 못 가진 사람에게 돌아갈 게 없습니다. 집 지을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지꾸면 욕심을 내면 꼭 필요한 사람이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별들은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더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그에게 불교와의 만남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해성의 80%는 열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도 해성이 충돌하면서 물이 공급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 된 것입니다. 생명체의 씨앗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죠. 우주엔 지구 같은 별이 무수히 많고 그들 사이에 우열은 없습니다. 그게 곧 평등이고 불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의 수준이 아니라 생활 속에 불법이 들어온 것은 아래의 소개로 한 스님을 만나면서부터다. 그 스님이 계신 절에서 함께 예불 드리고 잘하면서 며칠을 묵었다. 서울로 올라온 뒤 그는 보통 새벽 두세 시에 마치는 공부 끝에 108배를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친가지다. 절에서 했으면 집에서 해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예불과 같은 해인사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면서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

그는 빠져들면 들수록 불법이 우주 전체의 진리를 품고 있음에 놀랐다고 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에 빠져 사는 게 안타깝게 보인다.

물체는 서로 끌고 밀치면서/ 가는 길 돌아서/ 굽어 가기도 하지만/ 모두가 조용히 인연 따라/ 조용하게 이어 가네.

“무질서하게 보이는 별들은 서로 밀고 당기는 그 힘이 조화를 이루며 나름의 질서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그 조화와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사람살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더 많은 민족을 추궁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 “후배 앞길 막지 않겠다” 정년 5년전 교수직 사퇴

최소한의 것만 가지려 한다는 이시우 박사에게도 욕심은 있다. 별들이 사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것만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살고 싶은 욕심. 타인이 있어야 아랫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별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고픈 욕심. 무엇보다 별과 같이 제약을 받지 않은 무위의 마음을 갖고 싶다고 했다.

말을 마치자 이시우 박사는 또 눈길을 땀구며 예의 그 수줍음으로 돌아갔다. 울대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 때문일까. 하지만 그는 울대없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년’은 그의 말이 아닌 모양이다. 평생 별만 보았고 별들의 삶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배운 사람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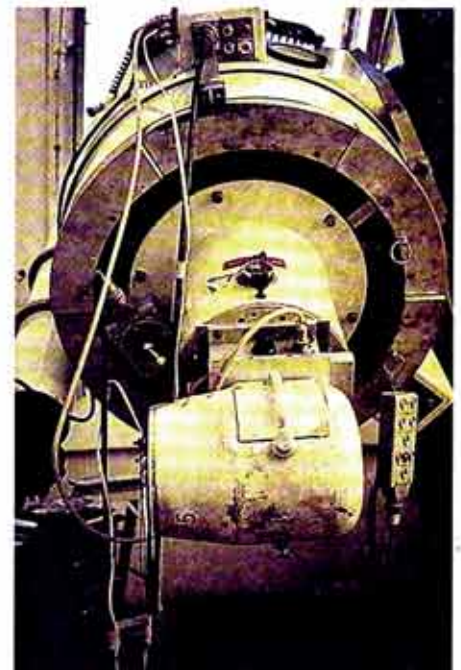
권형진 기자(jiny@buddhapia.com)



### 우주와 나

별들의 생멸과 운동에는 삶의 조화로운음이 들어 있으며 이것이 곧 만유(萬有)가 따르는 우주의 섭리이다. 신비스러운 밤하늘의 우주! 그 속엔 나의 정겨운 열정이 담겨 있다. 그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이야기가 남아 있다. 이젠 그 이야기를 별들에게 남겨 두고, 우주의 신비를 마음 속에 간직한 채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찾아 이렇게 새벽을 지새고 있다.

- 시집 <똥막대기> 중 '우주와 나'의 한 부분



이시우 박사가 유학했던 호주 국립대학교 부설 천문대에 있는 60cm 반사망원경.



◇은하수

### 별의 세대교체와 인연

별이 죽어 성간 물질  
성간물질 모여 성운  
성운에서 새별 탄생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모두 태어난 나이가 같을까? 1942년 미국 천문학자 바데는 지구에서 약 22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결과 은하 중심부에 있는 별이 젊은 별이고, 외곽에는 나이 많은 별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별들은 은하계 중심 주위로 긴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운동하는데, 별들 중에 질량이 큰 것은 진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물질을 밖으로 방출하며 빨리 일생을 마치고, 질량이 태양의 0.8배보다 작은 별들은 그 수명이 150억 년 이상이다. 태양보다 큰 질량을 가진 별은 태양보다 작은 별들의 수에 비해 월등히 적지만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큰 별들이 일생을 마치고 방출한 물질이 식어서 차가운 성간 물질이 되고, 이것이 다시 응축되어 제2세대의 별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2세대의 별들에서 방출된 물질이 다시 제3세대의 별을 이루게 된다.

밤하늘에 밝게 보이는 별들은 1세대의 젊은 별이다. 한 별이 죽으면서 흩뿌린 물질은 공간 밖으로 흩어져 나가 성간 물질을 이룬다. 이것은 어느 별에서 나온지도 모르는 다른 성간 물질과 합쳐져 더 큰 규모의 성간 물질을 이룬다. 이러한 성간 물질이 점점 많이 모여 큰 규모의 성운이 되면 여기서 별들이 탄생한다. 별들은 인간과 달리 그 뿌리가 하나로 이어지지 않고 여러 세대의 별들이 남겨 놓은 잔재물에서 탄생될 뿐이다. 그러기에 별들은 세대간에 인연들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인간처럼 인연에 따른 과보를 받지 않는다.



◇맑은날 초저녁에 희미하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오리온 대성운.



###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복령곰떡

금오 스님(1896~1968)이 절불사에서 선종을 진작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수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절불사에는 당장 저녁 공양거리가 없었다. 밤새 참선을 끝낸 금오 스님 앞에 수좌 스님들이 말을 꺼냈다. “저희 수좌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용맹정진코자 했으나, 어제 저녁을 굶고 오늘 아침까지 없으니, 아무래

도 다른 곳으로 가볼까 합니다.” “지금 조석(朝食)을 굶일 양식마저 없다는 말인가? “예.” “잠시 기다려보게.” 스님은 뒷방에서 동안거에 대비해 웅기그릇에 날아온 복령곰떡을 찾았다. 그런데 웅기뚜껑을 열어보니 두어 조각만 남아 있지 않은가. 할 수 없이 다시 대중방으로 돌아오신 스님이 수좌들을 향해 이르렀다. “우리가 전생

### 수행자 동안거 별식 ‘머리 맑게’

의 빛을 지고 오늘 칠불사에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 헤어진다며 누가 우리를 수행자라 하겠는가. 한 3일만 기다려보세.”

그런데 3일이 다 되도록 스님은 참선만 하고 계셨다. 답답한 건 기다리기로 한 수좌들이었다. 하지만 더 초조했던 이는 동안거용으로 준비해온 복령곰떡을 풀레 꺼내 먹은 한 수좌 스님이였다.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마침내 무릎을 꿇고 이실직고를 하며 눈물을 똑똑 흘리는 제자에게 금오 스님은, “떡을 먹고 나니 몸

은 좀 좋아졌느냐”며 탁발을 나가자고 하셨다. 그 수좌는 만성간염 환자였는데, 1말에 가까운 복령곰떡을 먹고는 몸이 많이 좋아졌던 것이다.

그렇게 나선 탁발길에서 스님은 다시 복령곰떡을 시주 받아 오셨고, 동안거에 모인 수좌들은 그 떡으로 겨우내 죽을 고통을 겪으며 용맹정진할 수 있었다. 좋은 간을 보양하고 눈을 밝게 하며, 복령은 머리를 맑게 하고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 약선식연구가.<신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 만드는 법(1~2인분)

- 재료** 복령가루 100g, 쌀가루 500g, 여러 가지 색공 100g, 묽은 소금
- 요리법** ① 쌀을 불렸다가 소금간을 해서 쌀이 복령을 섞어체에 내린다. ② 위 가루를 주먹으로 쥐어서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때 깨지지 않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준다. ③ 색공을 살짝 찌서 소금으로 간한 뒤 뭉치에 반죽한 떡가루를 담고 쪄낸다.
- 효능** ① 복령은 소변의 양을 조절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풍은 밤에 꿈을 흘리는 허약 체질에 좋다. ② 매일 꾸준히 먹으면 대한(大寒)에도 땀이 나고 추위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